

3. 페루, 알란 가르시아와 APRA의 이념적 전환

마르틴 다나카*

APRA(미주혁명인민동맹)당은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 시절(1985-1990)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임기를 마쳤다. 이후 90년대의 긴 혼란과 어려움을 뚫고 당과 알란 가르시아는 재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오늘날 당과 알란 가르시아는 과거와는 아주 다르게 변신했다. 그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파의 표심을 얻어야 했고, 보수정당들과 서둘러 의회동맹을 맺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알란 가르시아는 과거에 애써 달성하려던 사회 민주적 개혁을 포기했고, 대신 사회적 면에서는 크게 야심차지는 못하지만 친시장적인 자본주의 정책을 통해 정부를 이끌었다. 권력을 차지했을 당시의 높은 성장률 등 전반적 상황은 이러한 보수화 경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알란 가르시아와 APRA가 의욕에 넘쳐 과도한 개혁을 추구하던 과거 정책노선에서 탈피해 적극적 현실주의로 전환한 이유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해준다.

[Política/ Izquierda/ Socialdemocracia/ Elecciones/ APRA/ Alan García/ Perú;
정치/ 좌파/ 사회민주주의/ 선거/ APRA/ 알란 가르시아/ 페루]

* 마르틴 다나카는 페루연구소 연구원이며 페루가톨릭대학교 교수이다. 대표적인 최근 출판물들은 아래와 같다: “La crisis de representatividad en los países andinos y el ‘viraje a la izquierda’: ¿hacia una renovación de la representación política?” in Arturo Fontaine et al. (eds.): *Reforma de los partidos políticos en Chile* (PNUD, Santiago de Chile, 2008) and “From Crisis to Collapse of the Party Systems and Dilemmas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Peru and Venezuela” in Scott Mainwaring, Ana María Bejarano and Eduardo Pizarro (eds.): *The Crisis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in the And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2006).

서론

1979년 최고 지도자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또레의 사망 후, APRA당은 큰 위기에 빠졌다. 노인들이 당내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한다고 말해질 정도로 케케묵은 것처럼 인식되는 정당인데다 당 내부의 권력승계 문제로 심각한 투쟁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늙었다는 의미는 당내 핵심 지도자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 뿐 아니라 당의 이념이 새 시대를 선도하는 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뜻한다. APRA는 1930년대와 1940년대 펼치던 정부 전복 음모와 급진적 민족주의 혁명 프로젝트 등 마르크스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초기 이념을 버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전통적인 과두정당과 연계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국내외 자본가들과 협상을 하는 등 한층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수용했다. 게다가 라울 아야 데 라 또레의 죽음은 페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12년간의 군사독재(어느 정도 APRA의 역사적 목표를 수정하도록 만든)가 지난 뒤에 찾아온 짧은 민주화 과정 중에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지도자 알란 가르시아는 1982년 APRA의 사무총장이 되었고, 당을 급격하게 혁신했다. 펠리페 곤살레스의 스페인 사회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사회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과 신선한 그의 이미지는 이러한 변화에 기여했다. 알란 가르시아는 1985년 선거에서, 시장 지향적 개혁을 주도하다 외채위기로 고통을 겪은 제2기 페르난도 벨라운데 정부(1980-1985)의 인기하락을 적절히 이용했다. 알란 가르시아는 사회혁명 담론을 통해 아야 데 라 또레가 결코 도달하지 못한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렇게 하여 APRA는 창당 55년 만에 권력 최상층에 도달했다. 알란 가르시아는 유효표의 55%를 획득했고, APRA는 의회에서 거의 50%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제1기 가르시아 정부의 활동은 두 시기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초기 2년 동안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정부 핵심정책은 외채 지불을 유예하고, 가격통제와 수요축진정책을 실시하는 경제프로그램에 있었다. 이것은 인플레이를 낮추고, 경제 활동을 회복시키고, 임금과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런 인상적인 성공은 대통령이 약속한 ‘더 나은 미래’와 혁명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수사를 정당화시켰다. 알란 가르시아는 명백하게 억압적인 스타일로 편향되어 있던 기존 사회통제 전략을 보다 온건하게 바꾸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새 전략은 폭력으로 황폐해진 지역에 발전을 촉진시키고, 군부에 대한 민간의 통제를 강화하며,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나가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수요축진정책은 다시 인플레이를 조장했다. 알란 가르시아는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과열을 식히는 대신에, 투자의 리듬과 방향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 은행을 국유화하라는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은행 국유화는 결과적으로 우파, 상류층과 중상층, 기업가 단체들의 공개적 저항을 야기했으며, 대립을 심화시켰다. 게다가 국유화 프로젝트가 의회에서 거부되면서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더욱 곤경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갈등 기간에 민간투자는 감소하고,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은 계속 증가했다. 알란 가르시아 통치기간 마지막 2년 동안 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물가 상승과 불황이 겹치는 불길한 사태로 발전했다. 같은 시기, 페루와 유사한 경제정책을 취한 아르헨티나의 라울 알폰신 정부, 볼리비아의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 정부, 브라질의 주제 사르네이 정부도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 늪에 빠졌다. 무엇이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었을까? 폭발하는 국민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많은 정치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페루

의 경우, 왜 알란 가르시아가 긴축재정을 취하는 것이 어려웠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좌파연합(Izquierda Unida)의 정치적 약진과 관련이 있다. 1985년 좌파연합의 대통령 후보인 알폰소 바라떼스가 25%의 득표를 했고, 그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경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용적인 사회통제 정책이 성과가 없자 1986년 중반부터 정부는 다시금 인권을 유린하는 억압적 정책으로 선회했다. 인권 활동가들에 의하면, 각계각층의 정부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했으며, 가르시아 대통령까지 어느 정도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문제들 가운데에는 많은 고발과 항의를 불러일으킨 부정부패 문제도 있었다. 1985년 APRA의 꿈과 환상은 이렇게 지독한 악몽이 돼버렸다.¹⁾

고난의 여정과 리더의 귀국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기존 정당 무용론을 주장하며 정치 무대에 등장한 일종의 아웃사이드였다. 1980년대 말 페루가 겪은 정치적·제도적 실패는 그가 권좌를 차지하는 데 용이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다.²⁾ 비록 커다란 사회적 대가를 치렀지만, 놀랍게도 후지모리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 후지모리가 1992년 친위쿠데타를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권력을 재조직하려고 법령을 공포했을 때, 대다수

-
- 1) 알란 가르시아 정부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시오. M. Tanaka, *Los espejismos de la democracia. El colapso del sistema de partidos en el Perú, 1980-1995, en perspectiva comparad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Lima, 1998; John Crabtree, *Alan García en el poder*, Perú, 1985-1990, Peisa, Lima, 2005.
 - 2) 1990년 선거에서 APRA의 대선 후보인 루이스 알바는 22%를 획득한 반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와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각각 33%와 29%로 2차 경선에 돌입했다. 결선투표에서 후지모리는 62%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페루 국민은 이를 목인했다. 군부는 1992년 4월 5일 전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 체포령을 내렸다. 그러나 알란 가르시아는 탈출에 성공해 콜롬비아로 망명했다. 같은 해 9월 후지모리는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동시에 센데로 루미노소의 최고 지도자인 아비마엘 구스만을 체포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는 데 성공해 페루 국민의 인정을 받았다.

후지모리 정권의 안정과 권력의 공고화는 전통적 정당들의 쇠퇴와 상관관계가 있다. 1995년 선거에서 후지모리 대통령은 64%의 표를 획득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APRA의 대통령 후보인 메르세데스 까바니아스는 단지 4%를 획득했으며, APRA는 단원제 의회 의석의 7%만을 차지했다. 여하튼 APRA당 후보는 대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지모리와 22%의 표를 얻은 UPP당(Unión Por el Perú)의 하비에르 빼레스 데 꾸에야르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후지모리는 제2기 정부(1995-2000) 내내 야당의 공세에 맞서야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전통세력이 아닌 독자적인 운동을 주도하던 새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2000년 선거에서 APRA당의 대통령 후보 아벨 살리나스는 겨우 1% 밖에 안 되는 표를 얻었다. 그러나 후지모리가 재선에 성공한 이 선거는 스캔들을 야기했다. 대다수 국내외 옵서버들은 이 선거의 투명성을 의심했다. APRA는 분명히 후지모리의 재집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얼마 후, 후지모리 체제의 붕괴와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 정국은 알란 가르시아의 본국 귀환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알란 가르시아가 자행한 인권 유린이나 부패 범죄와 관련된 미해결 고발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가 다시 공적 활동을 개시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알란 가르시아는 2001년 선거에 APRA당의 대선후보로 참

여했고, 놀랍게도 2위를 차지했다. 이 선거 결과로 PPP당(Partido Perú Possible)의 알레한드로 푼레도와 2차 경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알란 가르시아는 기력을 상실해가던 당을 부활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³⁾

알란 가르시아의 정치무대 복귀는 그로 하여금 사회변혁의 깃발을 다시 들도록 했으며, 동시에 첫 집권 기간에 범한 실수를 반성하게끔 했다. 푼레도 집권기(2001-2006)에 알란 가르시아는 대통령이 분배와 사회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APRA는 정치 스펙트럼 상 좌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좌파 측 입장(우파와 달리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던 상황에서)을 대변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⁴⁾ 이때 APRA와 알란 가르시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불기 시작한 ‘좌파로의 전환’이라는 새 흐름에 적절히 편승했다. 1980년대 누리던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한 마르크스주의 노선의 좌파, 우파 노선의 UN당(Unidad Nacional), 중도 노선인 푼레도의 정당 PPP당이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서로 경합하던 정치무대에서 APRA는 명백히 좌파 노선을 표방하며 부상했다. 결국, APRA는 페루 내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 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제2기 가르시아 정부(2006-)의 초기 2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정부의 활동이 UN당 정부 때보다 더 우파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의 지도자인 루르데스 플로레스는 알란 가르시아가 보수노선의 정부를 이끌며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의 66%가 알란 가르시아 정부가 “부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다”고 했으며, 단지 11%만

3) 첫 경합에서 푼레도는 37%, 가르시아는 26% 표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서 푼레도는 53%를 득표해 승리했다. 또한 APRA는 총선에서 20%의 표를 얻어 의회에서 제 1야당이 되었다.

4) 2000년 선거에서는 어떠한 좌파 세력도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이 “민중을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⁵⁾

신기한 것은 이 결과가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진행된 시장 지향적인 정책에 대해 의심과 불신을 받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⁶⁾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간 경쟁의 특성과 2006년 선거부터 나타난 정치세력 간 연합의 본질, 그리고 정당으로서 APRA의 약점 등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정당 간 경쟁과 2006년 이래의 정치 판도

2006년 대선 전초전 격인 2005년 내내 알란 가르시아는 좌파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반면, 발렌틴 빠니아구아는 중도 노선, 국민통합당의 루르데스 플로레스는 우파 쪽 진영에 가담해 있었다. 여기에 2005년 말엽부터는 UPP당의 대선후보인 오얀따 우말라가 좌파 노선을 천명하며 정치무대에 뛰어들었다.⁷⁾ 기존 정치 지형 내의 아웃사이더로서 군 출신인 우말라는 첫 선거에서 31%의 표를 얻었고, 반체제적인 노선의 유권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빠니아구아 후보(결국 6% 밖에 표를 얻지 못한)의 인기 하락과 알란 가르시아의 선거 슬로건 ‘책임 있는 변화를 향하여’는 정치 스펙트럼 상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

5) 2008년 7월 가톨릭대학이 리마 주변 수도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

6) Pedro Pablo Kuczynski and John Williamson (eds.), *After the Washington Consensus: Restarting Growth and Reform in Latin Americ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2003.

7) UPP당은 1995년 하비에르 베레스 데 꾸에야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때부터 선거에는 겨우 참여했지만, 급격히 쇠퇴했다. 오얀따 우말라는 2006년 선거를 위해서 PNP(Partido Nacionalista Peruano)당을 만들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었다. UPP당은 우말라를 선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연합을 제안했다.

들이는 데 기여했다. 누가 우말라와 2차 선거에서 맞설지를 두고 알란 가르시아와 플로레스가 경합했다. 결국 가르시아가 24.3%로 23.8%를 차지한 플로레스를 눌렀다. 둘 사이의 표 차이는 단지 62,578표였다.

알란 가르시아가 결선투표에서 우말라를 누르려면 첫 선거에서 플로레스를 지지한 우파의 표를 자신 쪽으로 끌어와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 APRA의 지도자는 기업가 그룹과 중·상류층의 APRA에 대한 불신을 타파해야 했다. 이 불신은 플로레스와의 선거전을 통해 심화된 것이었다. 그래서 제2차 경합에서 가르시아는 ‘모험주의’를 표방한 우말라 앞에, 체제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 전략은 중·상류층 유권자의 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 인사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알란 가르시아가 그다지 마음에 드는 후보는 아닐지라도 더 나쁜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면 중·상류층 유권자들이 그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암묵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알란 가르시아는 53%의 표를 획득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알란 가르시아는 실망스런 자신의 제1기 정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불신을 극복해야 했다. 특히, 제1기 정부 때 펼친 은행 국유화 시도와 같은 것이 불신을 야기한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알란 가르시아는 친시장적 정통자본주의 경제정책 추구를 표명해야 했고,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유능한 사람들을 중요 직책에 임명해야 했다.⁸⁾ 의회 의석 비율 또한 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했다. 의석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UN당이 17석, 후지모리주의자들이 13석을 차지했다. 야당이면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우말라 후보의 UPP당은 45석(전체 120석 중)을 차지했다. APRA

8) 중앙은행 총재로 루르데스 플로레스와 UN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제학자 홀리오 벨라르데를 임명했으며, 국제은행과 긴밀한 경제학자 루이스 까란사를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는 36석 밖에 얻지 못했으므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요 정당과 연합이 필요했다. 게다가, 알란 가르시아가 정권을 인수했을 때 경제가 무리 없이 성장 중이었으므로 경제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다.⁹⁾ 이런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제2기 가르시아 정부는 처음부터 보수적인 측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제2기 알란 가르시아 정부 초기 2년차까지의 논리는 무엇이였을까? 요약하면, 2006년 선거 전부터 이미 알란 가르시아는 친시장적 정통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하고, 국내 주요 세력(기업가, 가톨릭교회, 군부)과 연합하면서 미래의 반체제 세력의 위협 앞에 일종의 차단막을 치려했다. 제1기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권력을 다루는 알란 가르시아의 스타일을 보면, 그는 대단히 외로워 보인다. 제1기 집권 기간 동안에는 정당보다 동료들을 중용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 요즘도 역시 여당을 통해 통치하지 않는 성향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동료 그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주요 정치세력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기적으로 조언을 듣는 일도 없이 고립된 업무 스타일을 보인다. 이러한 고립은 어느 정도 불관용적인 태도나 편집증을 강화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알란 가르시아는 정부 각 부처 간 분쟁에서 최고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국정외의 틀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려한다. 이 스타일은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즉흥적인 대응, 과시주의, 반복적인 개입, 중·장기적 의제 부족, 비효율적 공공정책 수립과 운영 등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 모든 것에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해야 한다.

9) 2001년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겨우 0.2%를 기록했으나, 2002년에는 5%, 2003년에는 4%, 2004년에는 5.1%, 2005년에는 6.7%, 2006년에는 7.6%(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로 점차 나아졌다. 국립통계청(INEI) 자료.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성장률을 넘어 페루 경제는 계속 성장 중이다.¹⁰⁾ 그러나 이 성장은 공공정책, 국가의 제한된 권한, 해결하지 못한 중대 과제들, 구조적 무기력과 불평등 극복의 어려움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한계는 거시경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기는 하락하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2006년 9월에 알란 가르시아는 63%에 해당하는 지지율을 획득했으나, 2008년 7월의 평가에서는 단지 26%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알란 가르시아가 주도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16%에서 70%로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보자면, 2008년 7월 상류층의 지지율은 48%인 반면, 하류층의 지지율이 겨우 18%에 머물렀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동시에 리마에서 30%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남부지역의 지지율은 겨우 11%에 머물렀다.¹¹⁾ 이러한 불만은 입증하는 사회적 갈등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¹²⁾

앞서 지적했듯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인기가 하락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선회 경향 때문이다. 왜 가르시아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의 정부이면서도 자유시장 정책을 따르는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처럼 더 사회적이고 분배적인 조치들을 강조하지 않는가? 사실, 우말라의 높은 인기 비결은 성장 그 자체가 성장이 야기하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그의 유창한 달변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정치 스펙트럼 상의 알란 가르시아의 위치와 의회 내에서 그가 풀어야 할 과제 등 정당으로서 APRA가 갖는 약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10)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였고, 2008년 추정치는 9.4%이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페루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파나마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1) 원조에 대한 전국 도시 설문조사.

12) M. Tanaka and Sofia Vera, "El 'neodualismo' de la política peruana" in *Revista de Ciencia Política*, Vol. 28. N° 1, Instituto de Ciencia Polític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2008, pp. 347-365.

APRA의 제도적 약점

2000년 선거를 즈음해서, 페루 국민들에게 APRA는 거의 죽어가는 정당으로 보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APRA가 알란 가르시아의 귀국 후 본격적으로 2001년 선거에 참여하면서 현격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알란 가르시아에게 의존한 것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이다. APRA는 실용적인 논리와 노골적인 현실주의를 연결시켰다. 이 현실주의 노선은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논리를 따르게 만들었다. 따라서 알란 가르시아와 APRA는 1980년대에 표명한 사회민주주의적 특성의 주요 부분을 상실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후지모리주의가 대세이던 기간에는 APRA가 큰 힘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알란 가르시아가 외국에 머물 때 치러진 1995년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APRA의 생존 전망은 어두웠다. 이것은 이 당의 지도자들에게 당이 생존하기 위해 어느 정도 후지모리주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러한 인식은 알란 가르시아 제1기 정부의 내무부 장관이었으며 알란 가르시아의 측근인 아구스틴 만띠야(그는 많은 범죄를 저지른 민병대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으며, 이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¹³⁾ 1995년 만띠야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APRA의 사무총장과 2000년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만띠야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수행할 때,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더러운 일을 대신해주던 블라디미로 몬떼시노스와 협상해 선거자금으로 3만 달러를 받았다. 2001년에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알란 가르시아는 만띠야의 비도덕적 행

13) “Los asesinatos del comando paramilitar autodenominado Rodrigo Franco (1985-1990)” in Comisión de la Verdad y Reconciliación: *Informe final*, tomo VII, CVR, Lima, 2003, capítulo 2. 19, pp. 195-211 부분 참조.

위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었다”면서 그를 비난했다. 만띠야는 자신이 APRA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시도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패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만띠야가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사실은 그의 행동이 APRA 내부의 인식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즉, 후지모리주의와 대립하면 APRA가 끝장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했다. 최소한 당의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한 이런 현실적 타협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예상외로 견고할 것 같던 후지모리체제는 급격히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2000년 후지모리의 재선을 노리고 치러진 선거가 부정선거로 중대한 문젯거리로 대두되었다. 알레한드로 톨레도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APRA도 선두에 서서 항의한 그룹 중 하나였다.

민주적 상황이 도래한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APRA는 당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러한 노력은 가르시아가 톨레도와 2차 투표에서 맞선 2001년 대선과 4월의 총선에서 결실을 맺었다. APRA는 2002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총 25지역 중 12지역에서 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의 당의 승리와 활동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2006년 11월 APRA는 단지 두 지역(La Libertad과 Piura)에서만 승리했다. 2006년 선거에서 APRA는 ‘사회연대’라는 단체의 발기를 통해 다양한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문호를 개방했으나, 커다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 결과, 알란 가르시아는 정치이념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수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여러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 폭넓은 정치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며, 기술적·관료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능력이 요구되는 정치·사회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즉, 알란 가르시아 ‘제2기 정부’는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만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제도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점도 명백히 한 것이다. 14)

APRA는 1990년대 혼란을 겪은 후, 왜 복잡한 공공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 충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지, 왜 다양한 사회부문을 수용하지 못했는지 당 차원에서 스스로 자문했다. 사실 알레한드로 톨레도는 이를 실천했다. 그의 PPP당은 정치영역에서 충분한 경험 없이도, 좌우파 양쪽에서 전문가와 기술자(기본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런 톨레도의 시도에 대한 알란 가르시아의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톨레도 정부에 참여한 좌파들은 곧 정권에 대한 반대자와 비판가로 돌변했고, 직책을 포기하고 톨레도와 결별했다. 게다가, 좌파인사들은 톨레도 집권기간에 발생한 인권유린을 고발했고, 이 중에는 톨레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들도 있었다. 이런 점들은 결국 좌파에 대한 알란 가르시아의 불신을 키웠다.¹⁵⁾

사실상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충분한 전문 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들 속에서 사람들을 충원할 가능성도 희박한 쇠퇴한 정당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회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 정부는 남아있는 2011년 임기까지 경제 안정과 투자를 유지하며, 빈곤을 줄이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톨레도가 집권기 내내 한자리 수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33%대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다는 점이다.¹⁶⁾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집권 후반부에 이루어 놓은 훌륭한 정치 운영과 경제성장 때문이었

14) 제2기 정부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Moisés Naím, “Latin America: The Second Stage of Reform”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95 and “Latin America’s Journey to the Market: From Macroeconomic Shocks to Institutional Therapy” in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Growth Occasional Paper* N° 62, San Francisco, 1995.

15) 페루 좌파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M. Tanaka, “The Left in Peru: Plenty of Wagons and No Locomotion” in Jorge Castañeda y Marco Morales (eds.): *Leftovers. tales of the Latin American Left*, Routledge, Nueva York, 2008, pp. 193-212.

16) 원조에 대한 전국 실태 자료.

다. 그러나 알란 가르시아는 전임자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다. 국립통계청이 발표한 빈곤 관련 최근 자료는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한다. 빈곤층이 2004년 48.6%에서 2007년 39.3%로 줄었고, 극빈층은 2004년 17.1%에서 2007년 13.7%로 감소했다. 이것은 정부의 실용적 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론과 전망

어디에 위협요소가 도사리고 있는가? 정치적 반대세력 안에 있는가? 알란 가르시아 자신은 이런 문제들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UN당과 후지모리주의자들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과 어려움에 시달리던 UPP당과 그 소속 의원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 반대파는 오히려 알란 가르시아가 “자신들은 못하면서 남이 하려는 것을 못하게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한 사회영역 안에 있다.¹⁷⁾ 분명히 이 부문에서 위협이 감지된다. 단편적인 사회운동의 활력 때문이 아니라 조급하게 단기간에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러한 시위들은 페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돈만큼 사람을 비열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데모를 선동하는 반체제 인사, 실패한 공산주의자, 환경운동가의 얼굴을 하고 돌아온 좌파인사 등이 정부의 적이다. 그리고

17) 가르시아는 일간지 El Comercio에 두 편의 글을 실었다: “El síndrome del perro del hortelano,” (2007, 10, 28) and “Receta para acabar con el perro del hortelano,” (2007, 11, 25). 여기서 가르시아는 저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 투자 증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이런 적들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보수주의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의 인식에는 “자신들은 못하면서 남이 하려는 것을 못하게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도 주로 방송과 시민사회 조직을 장악한 좌파(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안에 있다. 이들이 바로 가르시아 정부가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면에서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게 한 장본인들이다. 정부에 대한 좌파의 비판은 결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사회적 배제에 대항한 투쟁, 제도 개혁 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개혁을 상징하는 이런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자신의 것으로 하기는커녕, 아예 이런 깃발을 내리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APRA와 알란 가르시아는 제1기 정부 동안 보여준 개혁에 대한 강박과 과도한 의욕을 버리고 제2기 정부에서는 환상 없는 현실주의로 전환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영감에 의해 이끌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정부들과 달리 보수적인 활동 추구, 경제적인 측면에서 친시장적 자본주의 노선 유지, 엄격한 재분배 실천이나 사회정책에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알란 가르시아의 활동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반대파들, 특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정부도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PRA의 독특한 전환은 2006년 선거의 특성, 의회의 노선, 정당으로서의 APRA가 갖는 약점과 관련이 있다. 현재 APRA와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노선은 정치 상황에 따른 실용적 변화의 산물이다. 이것은 일반적 맥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조영현 번역)